인 사 말

하 상 도
(사)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수석부회장 /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

2024 갑진년(甲辰年),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의 위상과 역할

어느덧 지긋지긋한 코로나를 뒤로하고 권위, 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갑진년(甲辰年) 푸른 용의 해의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학회는 최근 국민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식품안전'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 집단입니다. 1986년 창립 이래 근 40년간 우리나라 식품위생 및 안전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매년 국제학술대회, 심포지엄, 워크샵, 제품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전문학술지인 'Journal of Food Hygiene and Safety'와 정보정책지인 'Safe Food'를 발간함으로써 최신 식품안전 학술정보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 관련 정보는 소비자들에게 잘못 전달돼 오해를 줄 경우 공급자, 판매자 뿐 아니라 해당 식품의 이해 당사자 모두에게 큰 타격을 줘 하루아침에 사업을 접어야 할 상황까지도 이르게 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소개하는 일반 교양방송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회, 경제적으로 파급력이 큰 분야입니다.

우리 학회는 앞으로도 식품안전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 정책과 제도의 합리화와 더불어 건전한 식품안전 정보의 보급에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정부의 안전관리 정책과 규제 시행에도 적극 참여해 객관적 균형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며, 국제화에 보다 힘쓰겠습니다. 최근 식품안전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11개 아시아-태평양국가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를 발족해 의장국으로 활동하며, 참여국들과 공동으로 아 · 태 지역 안전한 식품 거래 환경 조성과 공통과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우리 학회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학회의 성장과 국가 식품안전 기술수준 향상에 헌신해 오신 본 학회 임직원들과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고 계신 131명의 이사회원을 포함한 276명의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학회를 통해 모든 회원님들이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로 발전해 나가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학회가 식품안전 분야의 지식의 원천이 되도록 참여해 주시고 힘을 쏟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